

1. 教會에 革新을
2. 社會에 變革을
3. 世界에 所望을

감사절을 맞음

재일대한기독교회가 뜻깊게

우리의 신앙은 영적문제에 대한 신앙뿐만 아니라, 육신생활전체를 드러하나님을 아버지로 신앙하고 그리스도를 역사의 주로 믿는 것이다. 인간의 육신생활의 홍망성채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다. 농업국가의 백성으로 우리한국인신도는 가을철을 맞이하여 오곡백과와 열매를 우리생활의 기반으로 생각하면서 그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께 바치는 추수감사절을 진심으로 지켜온 것이다.

재일한국인신도는 본국에서 사는 신도와 말라서, 생활을 외국에 부처한다는 특수환경속에, 생활의 기본권리도 직접으로 주장하지 못하고, 생명재산의 보호를 무조건으로 받을 수 없는 처지에서 산다. 불안이라는 낯선 그대로가 우리의 생

활이다. 조국은 있으나 직접 생활의 위지를 할 수 없고, 사방에 보금자리를 얻지 못하고, 생활의 안정을 기대할 수 없는, 재일한국인으로서 믿는자는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와 희망을 두어,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기도만이 우리의 삶의 힘이 되어 있는 것이다. 사방에 애로속에서 탄식할 때 공중나는 새를 보라하신 주의음성으로 생의전체를 새로 하나님께 맡기고 살게 된다.

감사절은, 재일한국인신도로서 가장 믿음직하고 자랑넘치는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큰명절이요, 가장 진실하고 소박한 신앙의 제사를 드리는 날이다. 금년은, 11월21일 주일을 중심으로 총회내 모든 교회가 성대히 지킬 것이다.

은 70才로 한다. 但 教會가 視務를 願할 時는 視務年限을 一年式 한다.

1) 定年된 牧師는 地方會와 總會의 公職에는 就任할 수 없다.

3. 牧師接手

金君植牧師 (東京神學大學大學院卒業 獨乙 하이델베르크大學留學 橫濱教會視務) 李泰雨牧師 (同志社大學神學部大學院卒業 延世大學校併合神學院留學 在日韓國 YMCA幹事) 의 두 牧師의 接手式이 13日 저녁 7時에 行해되었습니다.

4. 캐나다長老教會와의 協約이 採用됨

1927年以來로 姉妹關係에 있던 캐나다長老教會와의 關係는 새 協約으로 보담도 緊密히나지며 선교사와 그 모든 機能 (財政을 포함하여) 은 完全히 總會機構에 統合된다.

5. 別紙와 같은 南 北赤十字會談支持

聲明書를 滿場一致로 채택하였다. 이것은 總會의 社會責任에 對한 證거의 자세를 意味하는 것이다.

6. KCC開館式

13日 午後2時 總會總代員과 内外來賓 300名의 迎 接下에 오랫동안 祈禱하고 獻金으로 도와 온 在日韓國基督教會館 (KCC) 落成開館式이 行해되었다. 同胞가 集中하여 사는 大阪市와 特別 生野區에 있어서 教會의 社會活動 근거지가 되는 움직임이 始作된 셈이다. 以上

總會長 金得三
總務 李仁夏

사와 회원 6명이 우리와 함께 활동하였고 西新井교회에서 最敬式목사와 교인 3명이 협력하였다. 일본에서 보기도물만한 우리동포집거주지인 調布교회근방동네에 복음전도를 한집도 빼지 않고 실시하였다.

13일 밤은 청년중심으로 집회를 가졌는데 20명가까히 모여 예배를 드린후 자유간담회를 열었는데 현대에 사는 청년들의 기탄 없는 종교관 사회관 민족관 국가관의 발언이 있어 많은 유익을 보였다.

14일 오전예배는 감사절예배로 지키고 감사헌금을 바쳤는데 32만원의 헌금을 드려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 밤예배를 전도집회로 모였고 32명출석으로서 근래에 없는 활기 있는 전도집회로서 調布교회가 새로 일어난것과 같은 은혜의 성회로서 마쳤다.

堺 教會

에서도

堺교회는 10월22일~24일 가정문서선교회 일본지사의 후원과 지도를 받아 처음되는 축호전도를 실시하였는데, 堺교회신도전체가 사명에서서 전도의 자각과 열성을 가지게 되어 선교의 교회의 본질을 찾은것같은 큰 운동으로 전개되었다. 매일 25명의 교인이 동원되어 전도지를 가지고 집집마다 전도방문을 하였는데 3일간에 350집넘어 방문하게 되었다. 저녁은 전도집회로 모였는데 강사 김호식목사의 특색있고 내용이 풍부하고 감동깊은 설교에 주일저녁은 70명이 회집하여 큰 은혜를 받았다 한다. 堺市에는 한국동포가 약 5000명이 되는데 이번 축호전도로써 우리동포의 거주지역과 명단을 밝히게 되어 앞으로 堺교회의 선교자세와 대상의 확실한 파악과 전도의 방법의 구체화를 보게된 것이 큰 소득이었다고 한다.

第27回 總會組織

主 안에서 平安하심을 祝願합니다. 지난11月12日~14日 KCC에 位置하는 大阪教會에서 第27回 總會가 開催되었습니다. 아래에 몇가지 소식을 적어 보내드립니다.

1. 總會機構改正과 新任職員會

10年前에 整備된 8局7委員會를 簡素化로 3活動局과 2조직局에 統合하여 보담도 地方會와 個教會活動에 重点을 두는 方向으로 機構改正案이 採決되어 아래의 新任職員들이 選출되었습니다. 總會長 金得三牧師 副會長 尹宗銀牧師 副會長 金光深長老 (信徒一名이 副會長되기로) 書記 黃在正牧師 副書記 李昌雨牧師 (10月23日 黃在正牧師死亡으로 書記가됨) 伝道局 金德成牧師 教育局 洪東根

牧師 社會局 金在述長老 財政局 金漢弼長老 人事局 金得三牧師 (總會長職務上) (以上任期2年) 以上 任員들과 總務 李仁夏牧師 (任期3年) 宣教10個年計畫 總幹事 田永福牧師 (12月까지 次後는 新任職員會에서 決定) KCC館長 俞錫濤長老 (任期3年) 의 3職員과 4地方會長 (關東 吳允台牧師 中部 金承俊牧師 關西 金元治牧師 西南 崔昌華牧師 會長이 總會長되었음으로 副會長이 代身함) 로 任職員會가 구성됩니다.

2. 牧師視務任期와 年限의 憲法補則이 採決 第53條 牧師의 한 教會視務任期는 6年으로 하되 該教會 諸繼統視務를 願할 시에는 該教會 諸職會 3分之2의 可票로 視務할 수 있다. 第54條 牧師視務定年

전국국가정문서선교회 일 본지사가 교회와 공동목회적인 활동으로 가장 밀접하게 일할 수 있는 것을 축호전도라 할 수 있다. 교회의 교역자와 신도들 뿐만아니라 그지방안에 있는 여러교회 교역자 신도와 함께 순수한 개인전도를 실시하는데 문서선교회가 협력하여 계획을 세우고 방법을 지도하면서, 그 지역의 세밀한 지도를 펴놓고, 구역을 나누어 대를 짜서 전도자와 기타 문서를 가지고 집집을 찾아다니면서 전도하는 것이다.

西新井교회 11월 5일~7일 3일간 관동지방에서 처음으로 西新井교회가 축호전도를 실시하였다. 문서선교회일본지사장 최충식목사가 앞장서서 선교10개년계획중간사 전영복목사가 강사로 출현하고, 西新井교회 최경식목사가 총지휘자로, 調布교회 강영일전도사가 협력하여 교인 25명이 출동하므로 3일간에 西新井중심

관 동 지 방

으로 동포가 거주하고 있는 여러구역 동리를 다니면서 합 240집을 방문하여 전도하였다. 6일 밤은 청년 중심으로 전도집회를 개최하였는데 50명회집 활발한 분위기 속에서 전도집회를 가졌다. 7일 오전예배는 추수감사절예배로 지키고 밤은 전도집회로 모였는데 동경교회 오윤태목사와 品川교회 김재호목사의 후원으로 65명 회집 성대하고도 은혜에 넘친 집회를 가졌다. 西新井교회는 최경식목사를 담임목사로 맞이한후 일신된 발전을 보고왔는데 금번 축호전도로써 새로운 교회형성의 발단을 보게된것 같게 부흥된 은혜속에서 집회를 마쳤다.

調布교회 11월12일~14일은 調布교회에서 계속 축호전도를 전개하였다. 3일간에 축호전도의 활동한 교인은 17명인데 174집을 방문하여 전도도하며 대화도하며 토론도하였다. 調布에는 일본가정문서선교회 목

여전도회 12월 월례회를 위하여

영혼의 양식

누가 1:26~38

마태 1:18~24

대강절에

죄악으로 어두어진 암흑 세상에 환결같은 하나님 의 자비의 손길이 나리시 며 그 손길을 받아드리는 모습을 이제절에 다시금 깊이 머리숙여 배우고자 합니다.

금전과 명예와 권력의 겹을 휘두르는 세상물결에 현혹한 소위 거룩한 무리 들이 긴 옷을 입고 곳곳 에 회칠한 무덤을 의우고 있던 때였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받던 곳, 이방인들이 많이 섞여 살고 있는 갈릴리 지방, 나 사렛촌의 빈약한 처녀 마 리아에게 천사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은혜를 받 은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 서 나와 함께 하시도다」 마 리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천사가 다시 이르기를 「무서워말라……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기에서 마리아의 놀램은 더욱 커졌습 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의 대답은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리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 치 못하심이 없는나라」 였 습니다. 드디어 「주의 종 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 루어지이다」 하는 마리아의 아름다운 순종의 기도가

드러지고 천사는 떠나갔습 니다.

한편 같은 나사렛동리에 마리아와 약혼중에 있는 순직한 청년 요셉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목수의 일을 열심히 하며 앞으로 맺어질 날을 즐거이 기대 리는 중 마리아와 깨끗한 교제를 계속하였습니다. 그 러던 요지움 마리아의 몸 에 이러나는 이상한 변화 를 보고 요셉의 노여움과 슬픔이 뒤섞인 감정은 견잡을 수 없이 마음속에서 용솟음쳤습니다. 「역시 너도 그랬던가?」 「믿을 수 없는 일!」 그 아름답고 순박한 마리아의 미소된 얼굴을 머리에 그리며, 그 가 자기를 배신하고 속여 왔다는 것은 도저히 생각 하기 어려운 일로, 고심하 였습니다. 그러나 엄연한 사실앞에 요셉은 자기의 희망도 확신도 다 버려야 만 했습니다. 끝없는 번민 끝에 마리아와의 결혼을 그만두려고 결심합니다. 허 지만 착한 요셉은 마리아 를 원망하지 않았습니 다. 어디까지나 그를 부끄럽게 하지 않도록……가만히 약혼을 끊으려고 하였습니다. 이러던 요셉의 꿈에 또한 하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세상에 나실 아기예수 임마누엘의 소식이었습니 다. 잠을 깨 요셉의 마음은 새로워져서 마침내 하늘뜻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거룩한 땅 성전과 관계를 끊고

소박한 집안의 인간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떨며 두려워하는 마리아의 모습에서 값없이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되며 아주 빈곤한 근로의 감추 어진 곳이라도 그곳에 주 님이 함께 하시면 거룩해 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 다. 이 하나님을 만나 뵈 을때 비로소 인간은 겸손 해지고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 안에서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살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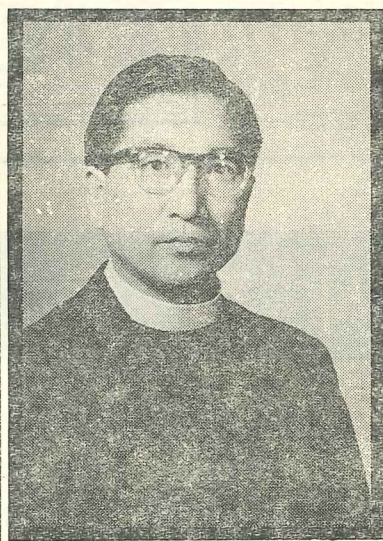
오늘날 우리의 주위는 요란하고 많은 근심과 걱 정으로 우리를 낙심케 합 니다. 그러나 세상나라가 별 번동을 가져와도 우리 의 육신이 점점 노쇠하여 도 주님이 같이 하시며 다스리시는 그 나라는 영 원하다는 굳은 신앙우에서 은혜를 입은 자의 자유롭 고 힘있는 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처하여 있는 곳이 빈곤하며 토동에 지친 고 탈풀 자리라도 이롭게 감추인 외로운 곳, 소망을 찾 기 어 렵운 황무지일지라도, 여기에서 더욱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에 고 요이 귀기우리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하는 기도도 다시 일어나서 참 된 성도의 사명을 다 하 고 싶습니다.

× ×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깊이 감사 합니다. 연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방으로 어두움이 질어만 가는 이때에 주 님을 기대리는 마음 새 롭게 일깨워 주소서 온 전한 믿을 저희에게 나 려 주소서 이 온 땅우 에 주님의 높으신 뜻이 이루어지 읍소서 예수님 의 이름으로 비읍니다.

《아 멘》

총무 이 영숙



배기환목사 별세

청천의 벽력과 같이 배기환목사의 부고를 듣고 천지가 아득한 듯 싶었다. 황재정목사의 돌연한 별세에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고 눈물도 마르기전에 배기환목사의 부보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헤아리기 어려운 섭리와 뜻에 방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배기환목사는 본국에 가서서 목회경험을 더하러하시다가 뜻을 채이루기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객지의 외로움 속에서 홀로 이세상을 떠나고 마셨다. 신학을 마친후 川崎교회에서 3년 横浜교회에서 4년 북부교회에서 시무 8년 현직 시무중에서 객사하신 것이 다. 전날 저녁에배에 힘찬 설교봉사를 마친것이 생의막음이 되신 그진지한 모습은 일생을 전도자로

현신한 복음의 사자의 귀한 생을 보여주었다. 때는 11월 4일 밤중 3시, 47세의 일생을 마감으로 하였다. 관서지방회는 지방회장으로 11월 12일 오후 2시 북부교회에서 고별식을 거행하였는데 총회내 목사 장로를 비롯하여 300명넘은 회장으로 배기환목사의 일생을 빛내게하였다. 북부교회는 순직자의 발자취를 귀히여겨 교인전체가 배기환목사의 유지를 힘차게 계승하기를 기도하여 마지 않는다. 유족여러분에게 하 나님의 위로 하심이 풍족하기를 기도하는 동시에 총회전체가 미망인과 자녀들의 앞길을 위해 뜻깊이 염려하여 드리기를 바라는 바이다.

(吊詩)

해바라기의 미소

—배기환목사님을 보내고— 문익환

동그런 해바라기가
황금빛 미소를 땅에 펼구
는배
배기환목사님은
형태도 없는 불덩어리가
되어
서산 넘어 저 고향으로
가셨군요.
해바라기의 동그런 미소를
60만 웅대한 얼굴들 위에
부서지는 하늘처럼 날리며
가셨군요.
그래도
이 밤이 지나고
내일이 눈부시게 밝아오면
가슴마다 몽글하게
또 다시 떠 오를 저 등
근 미소를
우리는 어떻게하면 좋지요?
울어야 하나요?
노래해야 하나요?
이 겨울도 가고

또 봄이 가고 여름이 지나
다시 가을이 오면
깊은데서 솟아 오르는 미
소를
가출 길 없어
빙그레 웃을
해바라기의 동그런 미소를
우리는 어떻게하면 좋지요?
울어야 하나요?
노래해야 하나요?
어렵던 60만의 얼굴들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황금 빛 미소를 날리는
날이 오면
우리는 노래할 겁니 다
배 목사님과 함께 동그런
미소를
날리며
동터오는 오늘을 노래할
겁니 다
눈물을 글썽이며 노래할
겁니 다
1971.11.16

(4면부터)

자산관리 수지결산 건
측보조등.

1.인사국

인사에 관한 제반건
교역자이동 선교사관계
유학생선발 처리문제등

1.총무직무

일반사무 경리사무 문
서보관 출판사업(복음
신문등) 기타 사업기획
등.

제 4 조 ①각국조직은 7명
이내로 하되 특별위원
을 둘 수 있다.
단 시취처리위원은 총

회시에 선정한다.

②동일인이 그국원
까지 겸임할 수 있다.

③인사국은 총회장
부회장 각지방교회회장으
로 조직하되 국장은
총회장이 겸임한다.

제 5 조 ①교역자이동및유학
생선발등 제반인사행정
은 해교회의 의결을
충분히 고려함과 동시
에 해지방교회임원회결의
를 경유하여 결정한다.

②보조교회의 인사
이 동결은 인사국에
있다.

제 6 조 ①지방회운영은 자
립을 목표로한다.

②교회운영비는 지
방회가 부담한다.

제 7 조 ①시무연한이 끝난
목사의 생활비는 해교
회가 6개월까지 책임
지기로 한다.

②계속시무하게되는
목사는 6개월간 연수
기간을 가질 수 있다.

제 8 조 내규개정은 총회총
대출석 3분지 2 의 가표
로 한다.

이상과 같이 통과되었다.



感謝節

— 総会内各教会で —

在日大韓基督教会が年中行事の一つとして、11月中旬の主日を、感謝節主日に定め、盛大に取り行っている。今年は、11月21日か、その前後か主日に各教会が感謝節として秋の収穫感謝節を意味し、礼拝と共に感謝献金を捧げることになっている。旧約時代には、麦の収穫感謝祭の五旬節と、ぶどう収穫の仮庵の祭が感謝祭として守られていた。

スイスでは9月、イギリスでは8月1日、ドイツでは9月29日の後の日曜日、アメリカでは11月第4木曜日が感謝祭として守られている。

日本の教会では、ほとんど守られていないようだが、韓国教会は、大祭として重要視されて来た。

我々は只、教会行事として習性的に行うというのではなく、信仰の真実さをもって感謝祭を守りたい。

秋になって、我々の生活特に韓国人が農業国としての生活の基盤となる収穫を了えて安寧と喜びを、神に捧げる感謝として守ることは、我々の信仰生活に大きな意義をもっていることと思う。

信仰が宗教概念でなく、生活化されることに於て、その生活が、自然とのかかわりによって営まれているということから、自然の恩恵が、神の恩恵として信仰するところより、この感謝節が生れて来たのである。

ややもすれば基督教が、霊の世界のもののみに傾き易い事を思うとき、肉体をもって生活する人間の現実が、歴史として神に摂理され、恩寵として恩恵づけられて生きるといふ我々の信仰から、素朴に、日用の糧を与え給えと祈り、空の鳥を見よとのキリストの声に、生活的な信仰を告白させられているのである。

収穫感謝節が教会の祭節として守られることは、キリスト教が、その民族の中に土着化することに於て、深い意義があると思う。

信仰が個の単位形態から集団形態として、複数人間の信仰となって来た時、必然的に生じて来るのは集団としての行動であって、それが神に捧げる行動となったとき、祭り

の形態として生れて来るのである。教会が単位形態を取る時、信仰の告白が礼典となり、祭儀となるのである。それが民族の中に土着化される時、民族的な祭りとして行われるようになるのである。ヘービー・コックスが「愚者の餐宴」という論文の中に祭りの神学を主唱している。

主の前の踊り、主の前の感

謝、主の前の信仰告白が肉体をもって、行動をもって、順序を整え、儀式的形態をとるとき、祭りとして行われるのであって、そこに素朴純真な霊と真実が捧げられるのである。こうした信仰が民族の中に、民族の生活の形態として土着化して行くとき、祭りが最も真実な信仰告白として植えつけられるのである。感謝祭を思わない日本教会は、韓国教会ほどに、キリスト教が土着化されないで民族の中に受肉されないで、只ことばとして神学概念の平面の上に建てられているように思えることも無理ではないと思う。

聖地研修旅行記(4)

下関教会 洪 永 其 牧 師

主の予言どおりになったのである、マタイ11章23節、カペナウムよ、おまえがどうして天に上げられることがありえよう。ハテスに落とされるのだ。……その通りハテスに落されたカペナウムは1700年間知る人もなかったそうである。1894年にフランススコ会が、この地方一帯を買収したとき、偶然この土地が昔のカペナウムであることがわかり、1905年になって発掘が始められたと云う。湖畔寄りの広場に、当時の建築石材が集められてある。石段も土台も、石柱も石臼もある。紀元3世紀頃の教会の跡もある。シナコク（会堂）の一部が残っている。石柱にはダビデ王の文章がはっきりときざまれている。

私達はそこから祝福の山と呼ばれている山上の垂訓の山に行った。ここはガリラヤ湖に向い出た小高い山である。山上に美しい山上垂訓教会が建っている。そこで私達一行56人は礼拝をした。松村神父の司会で小生の祈りと宮坂教授のマタイ5章を読んで終った。私は主イエスのその祝福の言葉がこの場所で弟子達に教えた事を思い今私達に、ぢかに教えられ気がしたのである。なんともいえない感激無量であった。私はそこにある石を拾って来た、すぐ目下にガラテヤの湖だ。景色の良い所である。そこからキブツに向ったのである。キブツとは集団の意味であるが、イスラエルの生んだ独特

の集団農場である。最初のキブツは1909年、ガリラヤのデガニアに東欧からやって来た12人の青年によって設けられた。はじめは脱落者も出て悪戦苦闘の末、ついに輝かしい成功を勝ち得た。今ではこれをモデルにイスラエル全国に小は60人から、大は2,000人まで235のキブツがあり、8万人の人が参加していると云う。

ここで一泊した、Kibbutz Ayelt Hashaharの宿泊は実に簡素で清潔であった。食事の後から考えればキブツの食事が一番良かったなあと思うほどだ。今日は朝6時半起床7時半出発して、コラン高原をめぐり、ヨルダン川の最上源であるバニアスに行くことになった。ここは、今まで東洋人は勿論のこと観光客が行った事がないと云う。私達は日本の史学会であるから国防大臣が特別に許可したそうである。このためにイスラエル史学会の方々もずいぶん、骨おったとマイケルさんが説明した。なぜなら、ここは国境最前線地であり、何時どこからタマが飛んで来るかわからないからである。私達はイスラエル軍ジープに守られながら、おそろおそろ現地に向った。やがてパスは小川の上に架けられた小さな鉄橋の上に通過してとまった。これがヨルダン川であるとの説明には驚いた。もっと曲りくねった大きな川を予想したからである。川幅わずか数メートルしかない。しかし良く見れば、上流も上流だから無理もないと思った。バスから下りて数枚の写真を撮った。この橋ヤコブの娘の橋と云うそうで、これを越えた一帯の高地が、過ぐる年、あの六日戦争の激戦地であ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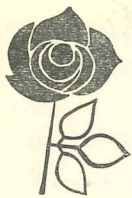
ここで運転手のモーセさんがどす黒い大男で大きな目から涙が流れた。どうしたのだろう。後からガイドのマイケルさんからの話によると、このモーセさんは、この橋の激戦の時、自分が部隊長で自分の部下が十数人も戦死したそうである。それを思い出したのだと云う。その説明きいてから何となく、彼に同情の涙がにじんだ。何と情深い人だろう。もう何年も過ぎさったのに、一見みた時、強くてきつそう、モーセさんが何んとやさしい人だろう、これでこそ立派な部隊長さんだと思った。もうこの地域はイスラエルではなく、元シリアの領土である。国連でアラブ連合は、この土地を返えしてくれと訴えているそうだ。ゴランの高地を右左にめぐりつつ登ってゆく。ここは又、一面早春の花野である。道路へりにはソ連製の戦車と自動車の廃品がちらかっている。激戦地を思わせた。途中大きな町があったが、家は全部からっぽである。家も財産もそのまま残して、体一本でにげて行ったシリア人の部落である。戦争の無情と悲惨を、そのまま物語っていた。はるか前方に清らかに雪を頂いた一連の山脈が見えて来た。ヘルモン山である。百花咲き乱れる花野の彼方、清らかにきびしく白いヘルモン山容姿は正に圧巻の景であった。数枚の写真を撮った。そこから更に北上を続けて、いくつかの小さな部落を通過して、目的地のバニアンについた。ここはマタイ伝16章に記されている、イエスと弟子達との対話した所であるそうです。小高山につきあたって、終点である。山の中間ほどに大きな、穴がぽっかりとあけて、大きな口を開いている。昔、イエスの時代は、ここから水が湧き出たそうですが、今はその下の熔岩塊の間から清冽に奔り出ている。私達は皆んな備え付の紙コップを手に、走って水の源にむかった。イスラエル中でこっだけは、生水が飲めると云うので、皆んなよろこんだ。ヘルモン山の雪がとけてそれが、あの小高い山の下をもぐって流れるものですからとても冷たくおいしい水でした。ここは水が豊富だから木

木の生育も非常によく、特に目立つのは柳の木である。これが有名なソロモン王がレバノンの柳を神殿につかうため集めたと云う木であるイスラエルに特有の柳で、とてもものびている。このバニアン源水地から再びガリラヤ湖へもどり、美しいタボル山を右手にナイン村を左にしてその間を通りぬけて、アフラ町についた。タボル山はナザレからテベリアに向って右東方10kmほどの所で、平原の中に丸く盛り上がるようにそびえている山である。

高さ588mでアラブ人はこの山を聖なる山と呼んでいる。旧約詩人がタボルへブロンはなんじの名によりて歎び呼ぶと歌い、ゲリンが創主が自らのために造りたまえる祭壇のごとく天に向いてそびえたりとしした山であるとう。この所は、女子言者テボラとバラクが、強敵シセラを破った有名な古戦場である。この山の向い側にあの有名な物語のナイン村がある。イエスがやもめの独子を死からよみがえらしたナイン村は今も貧しい村で15,6軒の家しか見あたらない所である。アフラ町で昼食を取って広い砂漠の平原を数時はした。砂山と石山の連続する所にサマリア町がある。

サマリア (SAMAR A) とは(展望台)の意味で平地より100メートルほど高い町である。攻めるのに難く、守るのに良い傾地である。B・C880年、北王オムリが創建されここを首都と定めた。しかしB・C724年アッシリア王によって征服され部族は捕囚として連れ去ったのちにメソポタミヤから移住させられた異民族と残留民との混血民族をサマリア人と呼ばれた。特にユダヤ人とサマリア人との交わりがないのは、混血民族よりもバビロン捕囚から復員したユダヤ人がエルサレムの神殿を再建するとき、これに協力を申し出が異教徒のごとく拒否されたので交絶となったと云う。B・C331アレキサンダー大王によってこの町は破壊され、ギリシャ風に建てかえられたがそれも、B・C108年に滅亡され、B・C63年再建した。B・C27年ヘロデが拡張再建し延長4kmに及ぶ城壁をめぐらし、城門は功石積の円形塔とし、街路の両側は円柱の列で飾り、美しいギリシャ風の街とした。

(つづく)



會議好きの基督教

「初代基督教がキリストの生の御命令に従って、宣教に、言うならば、神の国を告知すること、キリストの証人として生きることに信仰の姿勢を正し基督教の体質として専念した。今日の基督教は、組織としての基督教となつて、會議を基督教の体質となつたと言えるほど、會議が基督教の在り方ようになって仕舞った。信仰告白の是非が會議によって論ぜられ、多数決によって信仰告白が決められるという、基督教のすべての問題が會議の場によって可否を問われ、信仰の問題より始まり、宣教の問題、教会形成の問題、憲法の問題、社会関与の問題、言うならば、神の聲に従うべき問題、人に愛と眞実を注ぐ問題、生きる問題、生活の問題まで一堂に会した、議員の討議と多数決によって決定づけるという姿になってしまったのが、今日の基督教である。本来、信仰とは、神との對話の世界にのみ、生まれ、育ち、生きて行くものであって、會議に献議案としてかけられ、人間共が集って理論づけ、可否を問うという性質のものではないのである。宣教とは、キリストを証し、すべての人に生命を与えるほどに、愛を注ぐ、行動であつて、その方法計画等を會議で論ずべきものではない筈である。

今日の教会が會議に明け暮れ、會議によって存続しているような形になってしまったことを否むことが出来ない。牧師とは、會議屋のようなものであり、諸職会、堂会、信徒總會（合同議會）を、頼りどころとして牧会し、地方会の役員会、委員会、總會、總

会の小委員会、事ある毎に任職員会、青年活動にしても、青年會議、修養会も、修養會議の形となり、話し合いが分科會議となり、青年活動が會議の決定だけに終り、集って會議し、討議し、決定するだけで、終ってしまう現状である。婦人活動も、又然りであり、今日教会形成から、宣教活動、教会の歴史関与、社会関与、あらゆる時代的な状況へのかかわりに於ても、すべて會議で論議され、理論づけられ、体系づけられ、計画されて、それで万事終りりの状態である。

一人の基督者が、神から召され、神の聲に接し、その人格が深められ、高められ、キリストに捕えられた使命者として、歴史の中に、民族と生死を共にし、社会と生活を共にしながら、愛を注ぎ、汗を流し、血をさえ注ぎつつ、キリストを証して行くと言う基督教が會議の場に於て、見出すことが出来ようか。議論に明け暮れし、會議の進行に浮き身をやつし、自己主張と、他への批謗に声をからして、論争している會議の場に、キリストは、居給うかを思う

時、今日の基督教が何れほど間違つた方向へ流れて行くかを思ひしめられる。席温まる暇なきほどに魂を追い求め、キリストの如く、谷に落ちた一匹の小羊を求めて、公害にむせぶ工場の中に、都市の雑踏の中に、産業化された、文化都市の巷間に出て行く牧師は、會議にホトホト疲果てて、悶々としつつ、會議の基督教から脱け出さんとしてもがきつつある同労の友へ、キリストに従って、この世へと呼びかけているのである。會議の決定よりも、神の聲を聞きなさいと、會議する時間を、割愛して隣人へ語りかけなさいと、會議に浪費するエネルギーを、愛のエネルギーに聖別されて、いと小さき者へ愛を注ぎなさいと。牧師が牧師らしくなることは、會議を重要視せず、神の召命を重くし、會議を最小限度にして、羊を飼ひ、迷える羊を追い求めることに専念することである。羊と言う表現がよくなければ、教会にもっと仕え、宣教に全身全霊を打ち込むことである。貴い生涯を献げての献身者である。惜しむべしその使命を。(田)

헌법개정 내규 보충안

재일대한기독교 총회

(개 정 안)

<임 원>

제46조 ① 총회임원은 여좌하다.

1. 총회장 1인

1. 부회장 2인 (목사1인, 장로1인)
임기는 2년으로하되

재선을 금한다.

1. 서 기 1인

1. 부서기 1인

임기는 2년으로한다.

<기 관>

제47조 총회는 좌기국을 두고 국장은 총회에서 선정한다.

1. 전도국 1. 교육국
1. 사회국 1. 재정국
1. 인사국

단 국은 증감할 수 있으며 국장임기는 2년으로하되 3선을 금한다.

② 총회제반사무를 집행하기위하여 총무직주 두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총무는 직무상 각종회의에 참석하되 결의권은 없다.

제13장 보충

<목사시무임기와 연한>

제53조 목사의 한교회시무임기는 6년으로 하되 해교회가 계속시무를 원할시에는 해교회제직회 3분지 2의 가표로 시무할 수 있다.

제54조 ① 목사시무정년은 70세로한다. 단 교회가 시무를 원할시에는 시무년한을 1년씩 한다.

② 정년된 목사는 지방회와 총회의 공직에는 취임할 수 없다.

<장로장립 시무연한>

제55조 ① 장로장립은 60세까지 하며 시무연한은 70세까지로한다.

② 시무연한이 지난 장로는 해교회가 명예장로로 추대할 수 있으며 당회와 상회의 정회원권은 없다.

<집사 시무연한>

제56조 ① 집사시무연한은 65세까지 한다.

② 해교회가 원할시는 명예집사로추대할 수 있으며 제직회의 정회원권은 없다.

<지방회 구분>

제57조 ①총회내에 3지방회를 두며 조직은 총회에 준한다. 단 지방회조직은 해지방

회실정에 위하여 증감할 수 있다.

② 지역은 여좌히 정한다.

①동부지방회 북해도로 부터 岐阜県까지

②관서지방회 滋賀県으로부터 岡山県 四国까지

③서남지방회 広島県으로부터 沖縄県까지

지방회 직무 제58조 총회가 시취한 목사장로의 안수는 지방회가 행한다.

내 규

<집 무 분 장>

제1조 ① 총회장은 본총회를 대표하고 제반사무를 장리하며 그 그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총회장을 보좌하여 총회장유고시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서기와 부서기는 총회와 임직원회의 회록을 기록하며 총회내 각부서의 기록을 장리 한다.

제2조 각국장은 해국을 대표하여 국회를 소집하며 국활동을 장리한다.

제3조 각국소관은 다음과 같다.

1.전도국

전도전반사업 여전도회 신도회 선교10개년계획 사업 가정 문서 선교회 선교연구원.

1.교육국

기독교교육제반사업 교역자양성과시취 교회 학교및교사양성 청소년 및신도교육 장학사업 유치원등

1.사회국

기독교사회활동및 사회 복지사업 (KCC, 보육원사업등)

1.재정국

제반재정활동 재정조달 (2面으로)

教会の集会などにご利用を

教会の皆様には一泊2食付、サービス料などすべて込みで、¥1500.-です。
「ヘルストロン」保健装置を無料でご使用できます。
また、このルームにはキリスト教書籍を設置。

在日大韓基督教教会 指定旅館

上 椿

代表者 金 京 秋

和歌山県西牟婁郡白浜町椿

電話富田 (073991) 445~6

大阪案内所 大阪市北区曾根崎町2-21

電話大阪 (06) 341-2162

